

광주광역시, 올 들어 첫서리 관측

- 작년보다 20일, 평년보다 3일 늦어 -

-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,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밤사이 지표면이 냉각되면서, 오늘(8일)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 첫 서리가 관측되었습니다.
- 올해, 광주 첫서리는 작년보다 20일, 평년보다 3일 늦게 나타났으며, 오늘(11.8.) 광주 아침 최저기온은 3.6℃, 최저초상온도는 영하 0.9℃를 기록하였습니다.

지역	금년(2023년)	작년(2022년)	작년 대비	평년	평년 대비
광주	11.8.	10.19.	20일 늦음	11.5.	3일 늦음
목포	11.8.	12.8.	30일 빠름	11.24.	16일 빠름

※ 평년: 1991~2020년

※ 아침 최저기온: 03:01에서 09:00 사이의 가장 낮은 기온 값

※ 최저초상온도: 땅 위에 접해있는 풀 위의 공기온도로 관측된 자료 중 최저 값

※ 가장 빠른 서리 관측년도: 광주 1957년(9.27.), 목포 1956년(10.20.)

○ 광주·전남 주요지점 아침 최저기온(11.8. / 단위℃)

구분	광주	목포	유치(장흥)	곡성	이양(화순)	황전(순천)
아침 최저기온	3.6	5.6	-1.1	-0.6	-0.5	-0.4

□ 첫서리 사진



담당 부서	광주지방기상청 관측과	책임자	과 장	임병철 (062-720-0550)
		담당자	사무관	범은희 (062-720-0551)